

전남 중부권

日 지진 화훼농가에 '여진'

강진 양란·파프리카 등 수출 급감·경매가 하락

일본의 대지진 여파로 인해 강진지역 양란(洋蘭) 생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또 수곡과 파프리카 생산업체들은 일본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현지시장의 경매가격 하락 등 2차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관내 수출업체 중 신진 주작 화훼농조합법인(1만2000명)과 '구메탕'(1만6000여명) 등 영농조합 측은 지진발생 지역과 반대쪽인 남부 시노노세키와 오사카항 등을 통해 일본으로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출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양란과 수곡, 파프리카 생산업체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현지시장의 경매가격 하락 등 2차 피해에 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내 해조류 업체들은 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들은 일본 바이어들과 수출계약을 추진중에 있는 가운데 오히려 수출량이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이들 지진피해지역이 일본내 가공수산물공급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탐방객 반기는 박물관 산수유

강진군 병영면 도룡리에 있는 '와보랑개 박물관' 미당에 산수유 꽃이 활짝 피어 탐방객을 반기고 있다. 사진 제397호인 전라병영성 인근에 있는 '와보랑개 박물관'은 지난 2003년 불거리를 주고자 민속생활용품 등 우리의 생활사를 소재로 문을 열었으며 지난해 1월 2층 건물을 지어 새 단장을 했다. (강진군 제공)

'장성 아카데미' 700회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21세기 장성 아카데미'가 700회를 맞았다.

장성군은 오는 31일 군청 아카데미 홀에서 박민수 전남도 농업기술원장을 초빙해 '전남 농업발전 방안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는다.

이번 강연은 구제역 방역활동에 적극 참여한 유관기관·단체, 한우·양돈 협회 등 축산관계자를 초대해 축산업 선진화를 통한 명품한우와 양돈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자유무역 체제 속 농·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비롯한 축산업 선진화와 미래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명쾌하고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 '백양꽃' 자생지 복원

장성군이 희귀 특산식물인 '백양꽃' 자생지 복원에 힘쓰고 있다.

장성군은 백양사를 중심으로 장성호 관광지, 제봉산 등산로 등에 대규모 군락지를 조성, 본격 식재에 나섰다.

백양꽃은 한때 백양사 부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관리소홀로 멸종위기에 처한 상사화의 일종으로 장성군 백양사 인근에서 처음 발견돼 '백양꽃'이란 이름을 얻게 된 특산식물이다.

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백양꽃 증식 사업을 추진, 종구 10만구를 증식해 백양사와 장성호 관광지, 제봉산 등 산로에 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유전자원 보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증식된 백양꽃 종구는 내장



산국립공원 백양사무소로 분양될 예정이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백양꽃 자생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장성의 문화관광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흥군 노조기금 장학회 기탁 반대

찬반설문 조합원 76.6% "비대위서 관리해야"

장흥군 공무원노동조합(직장협의회) 기금에 대한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논란(광주일보 3월 11일 10면)은 현재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 운영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일부 공무원들간에 '공무원노동조합 장흥군지부'의 적립금 1억3500만원(이자 포함) 가운데 1억원을 인재육성 장학회에 기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대다수 공무원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총 340명 가운데 320명이 참여한 장학회 기금 기탁 찬반 설문에서 76.6%에 해당하는 245명이 "장흥군 노조 집행부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에서 관리해

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반면 17.5%에 해당하는 56명만이 장학금에 기탁하자는데 찬성표시를 한 것.

또한 장흥군 공무원 노조 재건에 대해서는 70.6%에 달하는 226명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위원장을 추대해 새 지도부를 결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설문에 응해 노조 해산 후 향후 새로운 노조를 출발하자는 29%보다 현 노조를 유지하자는데 지배적인 의견으로 모아졌다. 한편 장흥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2년 5월 군산하 6급 이하 직원들로 결성한 재집행부 구성 등의 이유로 2005년부터 노조활동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kykim@

농업시책 참신 아이디어 발굴

담양군 '직원 1인 1정책자문단' 운영

담양군이 농업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책개발을 위해 친환경농산유통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1인 1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 군은 산·학·연과 중앙부처의 농업 분야 전문가와 인문인, 농업인 단체로 자문단을 구성, 친환경농산유통과 직원과 유기적인 결연을 통해 전문가의 자문과 정보를 수집 지역의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시책 발굴에 나선다.

군은 그동안 산·학·연 및 중앙부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과의 네트워크가 약해 정부 시책사업 선점과 창의적인 시책 발굴 등에 능동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 정보고환과

자문을 위해 농업분야별로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1인 1정책자문단'을 운영, 자문단과 수시대화와 정례적 만남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담양의 농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정보 수집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업인과 관련 업계 관계자를 통해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사업 추진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전북



'부안 다문화 타임즈' 창간호 나왔어요

부안지역 다문화가정의 정보를 담은 격월간의 다문화 전문신문 '부안 다문화 타임즈'가 29일 창간호를 냈다. 취재와 기사송고에 맡은 기자들이 신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 벤처육성 촉진지구' 사업평가 1위

'전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가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주시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전국 25개 벤처 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및 지자체의 촉진지구 육성 의지 등을 평가한 결과 '전주 벤처촉진지구'가 최상위 등급인 S등급 1위를 받아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시제품 제작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벤

처기업 육성 의지와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 등이 인정을 받았다. 최우수평가에 따른 1억원의 사업비는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R&D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 벤처촉진지구는 전주 첨단기체벤처단지, 전주도시 첨단산업단지,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중진공아파트형공장, 전주 제1산업단지, 전북대학교내 창업보육센터, 전주 정보영상진흥원 등 7개 지구로 구성됐으며, 287개 업체·5396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전북 섬유도시 부활 신호탄

전방·한국시멘트·국일방직, 익산 등에 대규모 투자

전북지역에 섬유업체들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섬유·섬유도시'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전북은 1970~80년대 익산을 중심으로 쌍영방직, 쌍방울, 백양 등을 비롯해 300여 개의 직물 및 섬유 관련업체들의 활황으로 직물과 섬유의 지역이라는 명성을 얻었으나 1990년대 이후 값싼 중국산의 유입과 신제품 개발 실패 등으로 업체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전방㈜, 한국시멘트㈜, ㈜국일방직이 익산과 순창, 정읍에 각각 투자하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섬유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국내 대표적 방직회사인 전방㈜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익산 일반 산업단지 17만9천㎡에 단계적으로 2천3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방직설비를 갖춘 계획이다.

전방은 익산 산업에 원사류에서부터 특수가공직물, 의류 완제품에 이르는 섬유생산을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할 계획이어서 지역 섬유업체에 작업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시멘트㈜도 순창군 풍산농공단지 내 3만여㎡ 부지에 목화을 이용한 방직공장을 4월 착공한다.

한국시멘트는 총 436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이 방직공장을 준공하고 추가로 공장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읍 제2산업단지에 1·2공장을 가동중인 ㈜국일방직도 정읍 태인농공단지 5만여㎡에 면사 생산공장을 증설키로 했다.

국일방직은 800억원을 들여 3·4공장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완공해 연간 37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 있다. 한국니트산업 연구원은 원료와 원사, 편직, 염색가공, 봉제 등 그동안

업체별로 이뤄진 생산공정의 다양한 기술을 신한방직 등 3개 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토록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영세 섬유업체에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에 나섰다.

또 직물과 단순 섬유제품 생산에 그쳤던 도내 섬유산업에 패션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평상복이나 스포츠 의류, 자동차 내장재 등 기능성 첨단섬유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섬유산업이 쇠퇴했지만, 아직도 섬유업체는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의 잇따른 투자로 섬유산업이 지역의 제조업을 이끌어가기도록 한국 니트산업연구원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천년의 장맛 순창"

장류축제 11월 3~6일 개최

'제6회 순창 장류축제'가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천년의 장맛! 백 년의 미소!'를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축제는 '돈 버는 소득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장류축제를 통한 지역마케팅 강화로 순창 파워브랜드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열린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장류체험과 공연·경연, 주민 참여행사, 농특산물 판매, 장류국제포럼 등 국제 학술행사, 군민이 날 문화·체육행사, 포토존 등 7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호흡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다문화가정 색색이 전국장류 요리 경연대회, 순창고추장 베스트 선발대회 등을 새로이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 장류축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장류축제 개최시기 및 기간검토, 장류축제 대형 위탁기획사 선정 제안모집 등을 심의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단신

김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방식 추진

김제시는 요촌동, 신풍동, 교동·월촌동, 김산동 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총사업비 599억원을 투입해 하수관거 76km와 배수설비 3939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도내업

계 공동참여율이 40%에 달한다.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동 지역 우수·오수가 분리처리돼 악취 발생이 근본적으로 차단될뿐만 아니라 정화조가 없어져 주민비용 부담이 경감되며, 새만금 호수의 수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군산 금동 '해망대문' 준공

군산시 해신동 발전지원협의회(대표 고영수)는 지난 29일 금동 옛 도선장 일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리재생사업 일환으로 상징조형물인 '해망대문' 준공식을 가졌다.

폭 6m·높이 8m 규모로 해망대문이라는 장소성을 모티브로, 드

나들던 배의 형상을 이미지화시켜 역동성을 담고 솟구치는 기상의 미래성을 덧붙여 상징화했다. 해신동 발전지원협의회 고영수 대표 표는 "2014년 군장대교 완공과 함께 희망찬 도심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정읍 내달 7~10일 자생화 전시회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정읍 자생화 전시회가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정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하늘, 땅 우리 꽃 천지'를 전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정읍 자생식물연구회(회장 유길종) 주관·정읍시 주최로 자생화

700여점과 분재, 자생화 사진, 자생화 시 등 총 100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정읍 농업기술센터와 자생식물연구회 회원들이 가꾸어 온 자생화 분경을 비롯 희귀 자생화 10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부안경찰 변산반도 일대 자연보호 캠페인

부안경찰서는 지난 24일 국립공원 변산반도 내변산 일대에서 전의경 어머니회와 함께 봄맞이 자연정화 활동을 벌였다.

이날 정화활동은 이명호 서장과 전의경 어머니회원, 전의경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서면

우슬재에서 쇠뿔바위·청림마을까지 5km에 걸쳐 등산로에 버려져 있는 생수병·비닐 등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와 함께 등산객을 상대로 자연보호 홍보캠페인도 전개했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